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남 순 현[†] ·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기존 가족체계 이론가들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유형인 가족분화를 분리성과 연결성이 균형을 이루는 단일차원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분리성과 연결성을 서로 상반되는 하위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각각 독립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거리조절 유형을 각각 서로 독립적인 분리성과 연결성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리성은 의미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반대 개념은 연결성이 아닌 밀착이 된다. 연결성은 의미있는 타인과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반대 개념은 이탈이 된다.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보이는 반면에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밀착과 이탈을 동시에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분화를 다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단일차원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 한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따라서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은 정서적·심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

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 혹은 가족체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가족분화를 개념화하였다.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연

* 논문에 도움을 주신 신라대학교 전영주 선생님과 하와이대학교 김정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 순 현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136-701 / FAX : (02) 3290-2060 / E-mail : soonhyeon@hanmail.net

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 주는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정의되는데(Anderson & Sabatelli, 1992; Chun & MacDermid, 1997; Sabatelli & Anderson, 1991; 전영주, 1998), 이는 Bowen(1978)이 정의한 자기분화(self differentiation)의 개념과 다른 것이다. 첫째, 가족분화가 가족수준의 변인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기분화는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가족구성원 중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자기분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독자성, 독립성 등과 같은 개념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Friedman, 1991). 따라서 자기분화와 자율성간의 개념적 혼동은 높은 수준의 자기분화가 정서적 자율성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정서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친밀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지나친 연결성과 분리성은 긴장과 불안을 야기시킨다(Knudson-Martin, 1994).

그러므로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내에서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인 자율성과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가족체계 변인으로 자기분화 개념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유형을 대인간 거리(interpersonal distance)의 개념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Hess와 Handel(1959)은 분리성과 연결성이 가족생활의 역동적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조건으로, 가족은 분리성과 연결성 사이에서 만족스런 위치와 형태를 찾을 때 건강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L'Abate, 1985 재인용).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는 Farley(1979)의 개성과 연결성의 균형, Byng-Hall과 Campbell(1981)의 분리성의 두려움과 친밀성의 두려움, Boss와 Whitaker(1979), 및 Napier(1978)의 접근성과 분리성의 연속체, 및 Minuchin(1974)의 밀착과 이탈의 연속체의 개념들과 유사한 것이다.

가족체계 연구가들은 모든 가족은 가족분화의 수준에 따라서 특정지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Minuchin,

1974; Bowen, 1978). 잘 분화된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체계 내에서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잡힌 대인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잘 분화되지 않은 가족구성원들은 밀착되거나 이탈된 두 극단의 거리조절유형을 보인다. 밀착된 거리조절유형을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지나친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방해를 받는다. 이탈된 거리조절유형을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지나친 정서적 단절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연결성을 방해받는다(Anderson, & Sabatelli, 1992; Chun & MacDermid, 1997; Gavazzi, 1993; Sabatelli & Anderson, 1991).

그러나, 기존의 가족체계 연구가들이 가족분화의 개념을 단일차원의 양극성을 가정한 가족구성원들간의 대인간 거리조절유형으로 보고 있다. 즉 분리성과 연결성은 하나의 단일차원 내에 속하고, 각각은 그 차원의 양극에 존재하는 하위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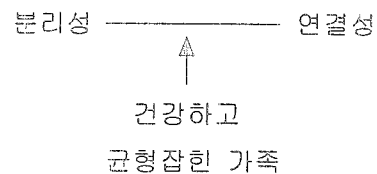


그림 1.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단일차원

그림 1은 가족분화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가정한 경우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가족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거리조절 유형이 균형잡히고 만족스런 위치와 형태를 찾을 때만 건강한 기능을 하게 된다. 즉 가족은 분리성과 연결성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건강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동일 차원내 상반되는 양극 하위수준으로 양립될 수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단일차원의 양극성을 가정한 경우, 극단의 분리성과 극단의 연결성에 속하는 가족을 어떤 수준의 가족분화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Sabatelli와 Anderson(1991)은 분리성과 연결성이 균형을 이룰 때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가 이루어지고, 극단의 분리성을

이루는 경우와 극단의 연결성을 이루는 경우에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Minuchin(1974)은 한 가족체계를 이탈과 밀착의 연속체로 보고, 극단의 분리성을 이탈로 가정하였으며 극단의 연결성을 밀착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리성과 이탈은 동일 개념이 아니고, 연결성과 밀착 또한 동일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Bowen(1978)은 “가족구성원들간의 극단적인 정서적 일치감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방해를 받는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을 밀착으로 정의하였고, “가족구성원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개인의 독립성만 강조하는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을 이탈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가족분화수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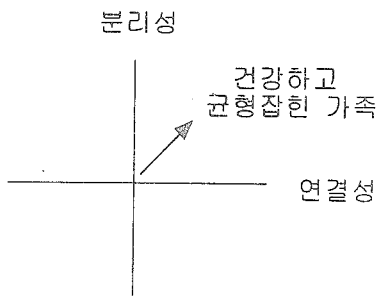


그림 2.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이차원

그림 2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유형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자마다 각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분리성(separateness)은 “의미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반대개념은 연결성이 아닌 밀착(enmeshment, 혹은 융합 fusion)이 된다. 또한 연결성(connectedness)은 “의미있는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반대개념은 분리가 아닌 이탈(disengagement, 혹은 단절 cut-off)이 된다. 따라서,

잘 분화된 가족구성원은 높은 연결성과 동시에 높은 분리성을 보이는 반면, 잘 분화되지 않은 가족구성원은 높은 밀착과 동시에 높은 이탈을 보이게 될 것이다.

가족분화의 다차원적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Olson 등(1979, 1983)이 연구한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수준과 가족분화의 각 하위수준을 비교하였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의 4수준으로 나뉜다.

Olson 등(1982)은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수준이 가족기능과 곡선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다른 가족체계 이론가들과 동일하게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적절한 가족응집성을 보일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 정도는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며 효율적인 가족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상태의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이 지나치게 높으나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가족응집성이 지나치게 낮은 이탈상태의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이 낮은 반면 자율성은 매우 높다(Olson, Russell & Sprenkle, 1979, 1983; Olson, 1989;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가족응집성 수준은 가족구성원들이 분리성과 동시에 연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극단의 가족응집성 수준은 가족구성원들이 이탈되거나 밀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신분열병과 같은 문제가 있는 임상집단의 가족연구를 통해서, Olson 등(1982)은 가족응집성이 가족기능과 곡선적인 관계(curvilinear hypothesis)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가족응집성의 곡선성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족기능과 직선적인 관계를 보였다(Olson, 1989). 즉 건강한 가족기능을 하는 가족구성원들일수록 밀착수준의 가족응집성을 보였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기능을 하는 가족구성원들일수록 이탈수준의 가족응집성을 보였다. 따라서, Olson(1989)은 가족이 임상집단인지 정상집단인지 하는 연구대상에 따라서 가족응집성과 가족기능간에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가족기능과 가족응집성간의 직선적 관계를 가정하는 새로운 체점체제와 가족유형을 제시하였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본 연구는 대학생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Olson 등(1992)의 새로운 체점체제에 따라 가족응집성의 직선성 가정에 따랐다.

마지막으로, 가족분화의 개념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 가족구성원내에서 하나 이상의 이자관계(multiple dyadic)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Anderson & Sabatelli, 1992).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분석단위로서 가족분화의 수준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 가족내 자녀와의 파괴적인 세대간의 연합(coalition)을 보이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보자. 그 가족구성원들간의 특정 이자관계, 즉 모자관계의 상호작용은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잘 분화된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가족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다른 이자관계, 즉 부부관계나 부자관계에서는 잘 분화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삼각관계(triangulation)는 부부간의 갈등에서 긴장을 해소시키려는 하나의 시도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와의 건강하지 못한 연합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쪽을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과정이다(Bograd, 1988). 즉 밀착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이탈된 아

버지와 자녀의 관계,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삼각관계는 가족구성원들간의 하나의 이자관계를 통해서 평가할 수 없다. 하나의 체계로써 가족은 상호 의존적인 각 부분들의 합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 가족전체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부분들 사이에 계속 진행되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Anderson & Sabatelli, 1992). 그러므로, 가족분화의 개념을 평가하고 연구할 때는 각 가족구성원들간의 하나 이상의 이자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

기존의 가족체계이론가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가정하고, 한 체계내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 중 하나가 대인간 거리의 개념으로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Kantor와 Lehr(1975)는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가족구성원들간의 거리조절을 가족의 주된 기능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Sabatelli, Anderson 및 Gavazzi 등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변인으로 보는 “가족분화” 개념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체계 연구가들은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을 단일차원의 양극성으로 가정하였다. 즉 분리성과 연결성을 하나의 단일차원으로 서로 상반되는 하위개념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가족내 가족분화수준이 높다면 분리성과 연결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것이고, 가족내 가족분화수준이 낮다면 과잉 분리성, 즉 이탈을 보이거나 혹은 과잉 연결성, 즉 밀착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각각 독립적인 하위개념으로 가정할 때,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족분화의

다차원을 가정할 경우,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분리성과 높은 연결성을 동시에 보일 것이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밀착과 높은 이탈을 동시에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을 지지하기 위하여,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수준을 분리성과 연결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이탈과 밀착이 동시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으로 나누어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기능을 보이는 경우이다.

또한, 하나의 이차관계를 통해서 한 가족의 체계를 설명하려는 연구들과는 달리, 가족분화는 한 가족의 전체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다. 가족분화는 가족치료의 기본이 되는 삼각관계, 더 나아가 사각관계 그 이상의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대학생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가족분화의 수준은 가족 응집성의 직선성을 지지할 것이다.
- 가설 2 가족분화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가정할 경우,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보일 것이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밀착과 이탈을 동시에 보일 것이다.
- 가설 3 가족분화는 삼각관계와 같은 이차 이상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유대를 설명해 줄 것이다.
- 가설 3-1 삼각관계는 부모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고, 어느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거나, 다른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 경우에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삼각관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238명의 대학생(남학생 135명, 여학생 103명)으로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0.78세(SD=2.40),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20.19세(SD=1.44)였다. 평균 형제 수는 2.54명이고, 맏이가 47%(112명), 중간이 13%(31명), 막내가 33%(79명), 혼자가 5.9%(14명)였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50.35세(SD=8.67)이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7.21세(SD=6.91)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15.5%(37명), 대졸 37%(88명), 고졸 36.6%(87명), 중졸 이하 10.9%(26명)이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3.0%(7명), 대졸 21.4%(51명), 전문대졸 0.8%(2명), 고졸 48.7%(116명), 중졸 이하 26.1%(62명)이었다. 가족의 한 달간 평균 수입은 150만원 미만이 19.3%(46명), 150-200만원이 30.3%(72명), 200-300만원이 29.4%(70명), 300만원 이상이 18.9%(45명)였다. 대부분이 핵가족(92.9%, 221명)의 가족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대가족이 5.9%(14명), 확대가족이 0.4%(1명)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본래 영어로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역번역(back-translation) 과정을 통해 본래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1) 가족분화척도 : 가족의 하위체계내 가족분화 수준을 알기 위해서 Anderson과 Sbat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등 대상만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된 설문지에 각각 응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응답자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견해가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아버지는 내 견해가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아버지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어머니는 내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어머니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야 한다.

한 개인의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에 30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 30점을 받았다면, A의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900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에 40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 20점을 받아 총 800점의 가족분화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것이다. 각 하위체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분화의 점수는 5에서 55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분화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개 하위체계에서 각각 $\alpha = .65$, $\alpha = .72$, $\alpha = .69$, $\alpha = .68$, $\alpha = .73$, $\alpha = .77$ 이었다.

2) 가족응집성척도 : Olson, Portner, 및 Bell(1982)이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FACES II) 중 가족응집성 척도 가족응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응집성 척도의 채점방식과 해석체계는 Olson 등(1992)이 정상 집단의 가족기능에 대한 직선성을 가정하여 세틀

게 보안한 채점방식과 해석체계를 따랐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에 따라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의 4수준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우리 가족은 ~이다” 대신에 “우리 부모는 ~이다”, “어머니와 나는 ~이다”, “아버지와 나는 ~이다”로 가족분화 수준과 분석단위를 동일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응답자는 “우리 부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나와 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나와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등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 하위체계에서 $\alpha = .82$, $\alpha = .79$, $\alpha = .76$ 이었다.

3) 삼각관계척도 : Bray, Williamson, 및 Malone (1984)이 개발한 가족권위 척도(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PAFS-Q) 중 가족내 삼각관계와 관련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부모의 삼각관계란 “부부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있고, 부부 중 한쪽이 자녀와 연합을 시도하려는 경향 혹은 자녀가 부모의 한쪽과 연합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관계”이다. 부모의 삼각관계에 대한 문항에는 “우리 부모는 우리들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자주 다툰다”, “우리 부모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등이 있다.

부모-자녀의 삼각관계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의 부모가 자녀와 연합하여 다른 한쪽의 부모를 소외시킨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와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로 나누었다.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는 “아버지와 내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소외되어 있는 관계”이고,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는 “어머니와 내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버지가 소외되어 있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어머니)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어머니(아버지)만 식사에 초대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는 “나는 어머니(아버지)하고만 식사한다”, “나

는 어머니(아버지)하고만 식사하면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에 응답해야 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부모의 삼각관계 11문항과 부모-자녀의 삼각관계 10문항(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 5문항,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삼각관계에 대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alpha = .69$, $\alpha = .65$, $\alpha = .66$ 이었다.

4) 인구통계학적 질문 : 인구통계학적 질문에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 자녀수,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및 경제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결 과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간의 관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 하위체계, 어머니와 나의 하위체계, 아버지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표 1. 부모의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가족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이 탈	3 (1.3%)	49 (20.6%)	52 (21.8%)
분 리 성	34 (14.3%)	58 (24.4%)	92 (38.7%)
연 결 성	66 (27.7%)	12 (5.0%)	78 (32.8%)
밀 착	16 (6.7%)		16 (6.7%)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68.55, df=3, *** p < .001$$

표 2.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수준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이 탈	11 (4.6%)	63 (26.5%)	74 (31.1%)
분 리 성	48 (20.2%)	43 (18.1%)	91 (38.2%)
연 결 성	50 (21.0%)	13 (5.5%)	63 (26.5%)
밀 착	10 (4.2%)		10 (4.2%)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68.55, df=3, *** p < .001$$

표 3.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이 탈	41 (17.2%)	101 (42.4%)	142 (59.7%)
분 리 성	47 (19.7%)	15 (6.3%)	62 (26.1%)
연 결 성	27 (11.3%)	3 (1.3%)	30 (12.6%)
밀 착	4 (1.7%)		4 (1.7%)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65.07, df=3, *** p < .001$$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가족응집성의 각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 표 2, 표 3은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가족응집성의 각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부모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1.3%, 14.3%, 27.7%, 6.7%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20.6%, 24.4%, 5.0%, 0%를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4.6%, 20.2%, 21.0%, 4.2%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26.5%, 18.1%, 5.5%, 0%를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17.2%, 19.7%, 11.3%, 1.7%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분리성, 연결성, 밀착 수준에서 각각 42.4%, 6.3%, 1.3%, 0%를 보였다. 결과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일수록 분리성과 연결성은 물론 밀착된 가족응집성을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일수록 분리성과 연결성은 물론 이탈된 가족응집성을 보임으로써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가족분화의 수준은 가족응집성의 직선성을 지지하였다.

가족분화 개념의 다차원을 가정한 경우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간의 관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의 각 수준을 분리성과 연결성의 수준이 동시에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응집성의 이탈과 밀착의 수준이 동시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으로 나누어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비교하였다.

표 4, 표 5, 표 6은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에 유형에 대한 다차원적 가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한 가족응집성 수준과 가족분화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부모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42.0%, 29.4%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8.0%, 20.6%를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41.2%, 23.5%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8.8%, 26.5%를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31.1%, 7.6%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18.9%, 42.4%를 보였다.

결과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관계가 있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분리성과 동시에 연결성을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밀착과 동시에 이탈을 보였다.

가족분화와 삼각관계간의 관계

가족분화를 분석단위로 평가할 때 우리는 가족체계 내 하나 이상의 이자관계(multiple dyadic)를 고려하여야 한다(Anderson & Sabatelli, 1992). 하나의 이자관계로 한 가족구성원의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치료의 기본이 되는 삼각관계는 하나 이상의 이자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이자관

표 4. 부모의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가족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높은 수준	100 (42.0%)	70 (29.4%)	170 (71.4%)
낮은 수준	19 (8.0%)	49 (20.6%)	68 (28.6%)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18.53, df=1, *** p < .001$$

표 5.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가족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높은 수준	98 (41.2%)	56 (23.5%)	154 (64.7%)
낮은 수준	21 (8.8%)	63 (26.5%)	84 (35.3%)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32.46, df=1, *** p < .001$$

표 6.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응집성 수준과의 관계

가족분화 가족응집성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전 체
높은 수준	74 (31.1%)	18 (7.6%)	92 (38.7%)
낮은 수준	45 (18.9%)	101 (42.4%)	146 (61.3%)
전 체	119 (50%)	119 (50%)	238 (100%)

$$\chi^2=55.57, df=1, *** p < .001$$

계는 더 나아가 사각관계 혹은 여러 개의 삼각관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삼각관계(triangulation)란 부부간의 불안정한 긴장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의 연합(coalition)을 통하여 안정을 찾으려는 과정이다(Kerr & Bowen, 1988). Anderson과 Sabatelli(1992), Gavazzi(1993)는 삼각관계가 부모의 낮은 가족분화 수준과 어느 한쪽의 부모와 자녀의 낮은 가족분화 수준 및 다른 한쪽의 부모와 자녀의 높은 가족분화 수준을 보일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삼각관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간의 삼각관계가 가족분화의 수준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것이다.

표 7은 가족분화수준과 각 하위체계 내 삼각관계와의 관계이다. 부모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와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와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는 부부간의 가족분화 수준이 낮고, 한쪽 부모와 자녀간의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와 다른 한쪽 부모와 자녀간의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경우에 가족구성원들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가설 3-1을 지지하였다.

표 7. 가족분화와 삼각관계간의 관계

	1	2	3	4	5	6
1. 부모의 가족분화	1.00					
2.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45**	1.00				
3.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58**	.48**	1.00			
4. 부모의 삼각관계	-.19**	-.21**	-.26**	1.00		
5.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	.28**	.07	.48**	-.09	1.00	
6.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	.65**	.13	.16*	.01	.65**	1.00

* $p < .05$, ** $p < .01$

표 8. 가족분화 수준에 따른 삼각관계의 차이

삼각관계	가족분화		F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부모의 삼각관계	62.51	50.26	166.15***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	54.01	41.57	117.19***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	59.73	50.28	104.55***

*** $p < .001$

표 8은 가설 3-2를 지지하기 위해서, 각 하위체계 내 가족분화수준을 독립변인으로 각 하위체계간 삼각관계를 종속변인으로 변량 분석한 것이다. 부모의 가족분화,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모두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삼각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삼각관계는 가족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설 3-2를 지지하였다.

논의

본 연구는 가족분화를 단일 차원적 양극성 개념보다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가정할 때,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지 살펴본 것이다.

기존의 가족연구가들은 가족분화를 분리성과 연결성의 단일 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가족분화를 단일 차원적 양극성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 분리성과 연결성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양쪽 극단에서 과잉 분리성과 과잉 연결성을 보일 경우 건강한 가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분리성과 동시에 연결성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극단의 분리성을 보이거나 극단의 연결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거리조절 유형

인 분리성과 연결성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분리성과 동시에 높은 연결성을 보일 것이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밀착과 동시에 높은 이탈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라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리성을 “의미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연결성을 “의미있는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분리성의 반대 개념인 밀착을 “가족구성원들간의 극단적인 정서적 일치감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방해를 받는 정서적 융합”으로 정의하였고, 연결성의 반대개념인 이탈을 “가족구성원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개인의 독립성만 강조하는 정서적 단절”로 정의하였다 (Bowen, 1978; Kerr & Bowen, 1988).

가족분화의 다차원적 가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79, 1983)이 연구한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수준과 가족분화의 각 하위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가족분화의 하위수준과 가족응집성의 하위수준을 비교한 결과, 가족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은 분리성, 연결성, 밀착을 보였고, 가족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응집성은 이탈, 분리성을 보였다. 이는 가족응집성의 직선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일수록 밀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일수록 이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다른 수준보다 분리성 수준(14.3%)과 연결성 수준(27.7%)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수준(20.6%)과 분리성 수준(24.4%)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분리성 수준(20.2%)과 연결성 수준(21.0%)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수준(26.5%)과 분리성(18.1%)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

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분리성 수준(19.7%)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응집성의 이탈 수준(42.4%)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리성과 연결성이 균형을 이룰 때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가족체계 연구가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이탈과 밀착이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성과 연결성을 각각 독립적인 차원으로 볼 때,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족분화의 거리조절 유형에 대한 다차원적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수준을 분리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보이는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밀착과 이탈을 동시에 보이는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으로 나누어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비교하였다.

결과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관련이 있었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42.0%, 29.4%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8.0%, 20.6%를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41.2%, 23.5%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8.8%, 26.5%를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하위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31.1%, 7.6%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각각 18.9%, 42.4%를 보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분리성과 동시에 연결성을 보였고,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밀착과 동시에 이탈을 보였다. 이는 가족분화의 거리조절 유형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때,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더 명료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문제점은 특정 이자관계를 통해서 전체 가족체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 내 부모가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를 하나의 특정 이자관계, 특히 모자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모자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모의 관계나 부자관계는 소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이자관계를 통해서 가족구성원 전체의 정서적 유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족분화는 전체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와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는 부모의 삼각관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 나의 동맹관계와 아버지와 나의 동맹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는 부부간의 가족분화 수준이 낮고, 한쪽 부모가 자녀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거나 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경우에 가족구성원들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다는 Anderson과 Sabatelli(1992), Gavazzi(1993)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체계 내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삼각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가족분화, 어머니와 나의 가족분화, 아버지와 나의 가족분화 모두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삼각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삼각관계는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보다는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Anderson과 Sabatelli(1992)의 연구와 Gavazzi(199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수준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다차원성을 가정하여, 가족분화의 각 수준과

가족응집성의 각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가족 연구에서 쉽게 간과되어왔던 문제인 특정 이차관계를 통하여 가족전체의 역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삼각관계를 통하여 전체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 작용하는 역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가족분화의 거리조절유형에 대한 다차원적 가정을 지지하였다. 즉 가족분화의 개념을 분리성과 연결성이 상반되는 양극단의 하위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각각 서로 다른 독립적인 하위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족분화의 개념을 평가할 때는 가족구성원들간의 하나 이상의 이차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분화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가정하였을 때, 높은 분리성과 동시에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경우를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 높은 밀착과 동시에 높은 이탈을 보이는 경우를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높은 분리성과 동시에 이탈을 보이는 가족분화와 높은 연결성과 동시에 밀착을 보이는 가족분화를 어느 수준의 가족분화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료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가족분화 수준을 통하여, 높은 분리성과 이탈 혹은 높은 연결성과 밀착의 가족분화 수준을 포함하는 각 수준별 가족분화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분화 연구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분리성과 연결성의 다차원을 가정한 가족분화 척도에 대한 요구이다. 부모-자녀 분화척도(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와 같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이차원을 가정한 가족분화의 척도개발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전영주, 1998), 보다 정교하고 명료한 가족분화 수준을 다루는 척도의 개발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 1, 22-45.
- Anderson, S.A., & Sabatelli, R.M.(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ograd, M.(1988). Enmeshment, fusion, or relatedness?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Review*, 42, 65-80.
- Boss, P.O. & Whitaker, C.(1979). Dialogue on separation: Clinicians as educators. *Family Relations*, 21, 391-398.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 Aronson.
- Bray, J.H., Williamson, D.S., & Malone, P.E.(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college student version of the PAFS-Q*. Unpublished Paper.
- Bray, J.H., Williamson, D.S., & Malone, P.E.(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67-178.
- Byng-Hall, J. & Campbell, D.(1981). Resolving conflicts in family distance regul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321-330.
- Chun, Y.J., & MacDermid, S.M.(1997). Perception of family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51-462.

- Farley, J.E.(1979). Family separation-individuation tolerance -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of the nuclear famil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5, 61-67.
- Friedman, E.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S. Gurman and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Gavazzi, S.M.(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Kantor, E., & Lehr, W.(1975). *Inside the family: Toward a theory of family process*. San Francisco: Jossey-Bass.
- Kerr, M.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W.W. Norton & Company.
- Knudson-Martin, C.(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s to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 1, 35-46.
- L'Abate, L.(1985). Descriptive and explanatory levels in family therapy: Distance, Defeats, and Dependence. In L. L'Abate(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Homewood: The Dorsey Press.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apier, A.Y.(1978). The rejection-intrusion pattern: A central family dynamic. *Joura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4, 5-12.
- Olson, D.H.(1989).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 VIII: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D.H. Olson, D.H. Sprenkle, D.H., & C. Russell(Eds), *Circumplex Model: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London: The Haworth Press.
-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H., Portner, J., & Bell, R.Q.(1982). *FACES 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H., Sprenkle, D.H.,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Olson, D.H., Sprenkle, D.H., & Russell, C.(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Sabatelli, R.M. & Anderson, S.A.(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원고접수일 1999. 3. 5

수정원고접수일 1999. 9. 9

게재결정일 1999. 11. 19

New Approach to the Concept of the Family Differentiation: Uni-dimensional or Multi-dimensional Concept?

Soon-Hyeon Nam &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In the previous studies, the family differentiation(the family system's interaction pattern) was conceptualized as an uni-dimension, which was balance of separateness and connectedness. However, when separateness and connectedness are considered as two extremes of the uni-dimension, the concept of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cannot be elaborated. Thus, in the present study, the family differentiation are separated by two independent dimensions involving separateness and connectedness. Separateness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a person increasingly achieves a sense of self that is distinct from significant others. The opposite pole of separateness on a continuum is enmeshment(fusion). Meanwhile, connectedness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maintain a sense of emotional intimacy to significant others while having distinct boundaries to the self, which is on the continuum with disengagement(cut-off) at the opposite po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maintained both separateness and connectedness, while the low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showed both enmeshment and diseng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amily differentiation explained better by the two independent dimensions than by the uni-dimension.